

# 전통주 · 인문학 결합 무형유산 가치 ↑

익산문화원, 막걸리빛기 인문학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도시재생지원센터, 전통주 전문가 기본교육 수강생 모집

익산시가 지역 전통주와 인문학을 결합해 지역 고유의 무형유산 가치를 높인다.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막걸리빛기 인문학프로그램인 '무형문화재 어울어씨'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무형문화재 어울어씨는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중목을 활용한 지역내 학습기회를 통해 무형문화재 공동체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익산문화원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막걸리빛기 인문학 체험프로그램'을 다음달 8일부터 매주 금요일 강연 8회와 답사 3회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익산의 무형문화재를 시작으로 일상에서 무형유산을 쉽게 즐기는 방법과 교묘한 속 전통주 이야기 등 다양한 인문학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잔을 채우고 잔을 빛는 막걸리 잔 만들기 체험 △익산의 쌀로 만드는 막걸리 빛기 체험과 지역별 양조장 체험 답사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선착순 25명을 모집하며 체험비, 답사비를 포함해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통주 전문가 기본교육 수강생 모집 포스터

하는 시민은 익산문화원(063-835-0120)에 문의

하면 된다. 이재호 원장은 "막걸리빛기 인문학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만의 무형유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전통주 전문가 기본교육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상반기에 뜨거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교육은 △전통주의 기본이해 및 제조방법 △밀술·덧술 발효관리 △전통주 빛기 등 전통주 입문자를 위한 단계별 맞춤 이론·실습교육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로컬콘텐츠기획사(주)콤포퍼가 운영하는 '한술연구소 전통주아카데미'(익산시 중앙로 7, 2층)에서 오는 29일 개강하여 매주 화·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 과정은 추석 연휴 전에 일정이 마무리된다.

출석 우수자(출석률 80% 이상)에게는 도시재생대학 수료증 발급과 함께 '한술연구소 전통주아카데미' 한술전문가 심화과정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만 19세이상 익산시민으로 20명 선착순 모집하며 한술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조운아 센터장은 "시민들이 도시재생을 통해 로컬푸드 콘텐트 발굴 및 개발에 집중하겠다"며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도시혁신 산업박람회에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고창농악보존회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제18회 고창군 한마당', '제4회 꽃대림 축제'를 고창군 성송면 농악전수관에서 연다.

## 고창서 흥겨운 농악 축제 펼쳐진다

고창농악보존회, 25~27일 '고창군 한마당'·'꽃대림 축제' 개최

고창농악보존회(대표 구재연)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제18회 고창군 한마당', '제4회 꽃대림 축제'를 고창군 성송면 농악전수관에서 연다.

고창군 한마당 포함하여 3일간 16개의 농악과 공연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7개의 체험 먹거리 부스가 차려져 전통과 현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농악 축제가 열린다.

25일에는 고창군한마당 및 축제당산 만들기, 고창농악상설관, 한마당 난장, 미디어 아트로 피어나는 소망의 꽃대림 등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둘째날인 26일에는 꽃대림 축제 핵심콘텐트인 버라이어티연희소가 진행된다. 이때 나도굿쟁이 버스킹, 풍장구, 부산민속예술보존회의 동래지신밧기(부산무형문화재 제

4호), 풍장구 Crossing 콘서트, Matsuri Crossing 밴드, 나나노콘서트, 날꽃대림파티 등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꽃대림축제를 기획한 고창농악보존회 이성수 사무차장은 "농악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의미있는 문화로의 농악을 위한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연 보존회장은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고창농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 농악의 정성스러움과 흥겨움 등이 한데 어우러진다면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스트레스를 날리고 마음의 풍요를 가득 채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혼불' 속 이야기 영상콘텐츠로 만난다

최명희문학관, 영상콘텐츠 제작

소설 '혼불' 속 이야기들이 밭짓이 살아 있는 낭독 영상콘텐츠로 독자를 만난다.

지난 18일 최명희문학관에 따르면 '혼불' 속 이야기를 활용해 영상물을 만들었다. 제작된 영상은 귀신사 홀어미다리와 이서 효자다리(상영 시간: 9분)와, 어찌 그리 녀속을 잘 안당가(상영 시간: 13분) 등 두 편이다.

먼저, '귀신사 홀어미다리와 이서 효자다리'는 '혼불' 제4권에 나오는 김제시 귀신사 입구의 홀어미다리와 완주군 이서면에 전해진 효자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홀어미다리는 귀신사 종과 속이 맞은 어머니가 밤마다 차가운 냇물을 건너느라 고생하는 것을 알고 아들이 남몰래 다리를 놓아주었다는 것이고, 이서의 효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머니가 차가운 냇물을 건너는 것이 안타까워 자기 몸을 냇물에 담가 징검다리처럼 밟고 지나가게 했다는 이야기다. 소설에서는 임서방이 명석에 웅긋중

곳 앉은 거명골 사당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이지만, 낭독과 듣는 이의 편의를 위해 임서방과 어서방네 두 사람의 대화로 설정했다.

이어, '어찌 그리 녀속을 잘 안당가?'는 거명골을 대표하는 인물인 웅구네와 춘복이의 대화를 엮었다. 과수때과 총각인 두 사람은 가끔 밤을 함께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뜻이 있다. 낭독극은 양반인 강삼이와 혼례를 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춘복이의 수레를 알아차린 웅구네가 춘복을 다그치며 자신의 간특하고 분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두 편 모두 연극인 정경선·이화진 씨가 소설 속 전라도 방언을 푸지게 들려주며 맛깔을 살렸다.

최명희문학관 최기우 관장은 "배우의 목소리를 입힌 '혼불'의 문장들이 중·고등학교와 문화·복지 시설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다양하게 활용돼 소설의 가치를 새롭게 알리고, 전라도 말에 자연스레 배인 흥과 웅숭깊은 맛을 전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영상물은 한국문화관협회의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제작됐다. 최명희문학관에서 제작한 영상콘텐츠들은 문학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최명희문학관 마음자리', '한국문화관TV'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26일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개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6일 제20회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악성 옥보고 명인은 신라 경덕왕 때 옥두품에 속하는 귀족이었음에도 거문고를 들고 지리산의 운상원(지금의 남원 운봉)에 들어가 50여년 동안 거문고를 연구하고, 30여 곡이 넘는 거문고 가락을 작곡해 우리 음악의 기틀을 다졌다.

이에 남원시와 (사)악성옥보고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뜻을 기리고 전통국악을 널리 발전 보급시키고 거문고를 배우는 학생과 연주자들에게 서로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번 제20회 경연대회는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명인부, 신인부로 진행되며, 올해는 신인부문이 새로 생겨 더욱 풍성한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치벌 대신 미술로 치유" 전북대서 기소유예 청소년 작품 전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유 프로그램인 '청소년 아트 테라피 J.A.T.(Jeonbuk National University Art Therapy)'가 3기 과정을 마치고, 작품 전시회를 마련한다. 전시회 오픈식은 22일 오후 5시 30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전북대 예술대학과 전주지방법검찰청,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가 주관해 시행된 것으로, 치벌 대신 미술치유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 예술대는 5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14명의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의 감정과 범죄사실을 글과 그림, 조형 작품으로 풀어내는 자기 고백적 미술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청소년들은 스스로 결과물을 창작해 가

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미래 목표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법을 체득했다.

작품은 오는 27일까지 전북대 국제컨벤션 지하 1층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주관한 엄혁용 교수(미술학과)는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결과 성을 다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주지방검찰청과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몽룡 총장은 "한 번의 잘못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